

道교육청 “AI 인재 양성으로 K-교육 미래 연다”

내년 글로컬 전남교육 도약 원년
주도적 배움 등 3대 역점과제 추진
2030교실 추가·교실 환경 고도화
국제교류·융합형 K-교육허브 구축

전남도교육청이 2026년을 글로컬 전남교육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도약하는 글로컬 전남교육! K-교육의 미래’를 여는데 박차를 기한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화순 하니움문화 스포츠센터에서 2026 전남교육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전남교육 정책 방향의 핵심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이다.

3대 역점과제는 ▲주도적 배움을 키우는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 주도 2030교실, 글로컬 독서 인문교육,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AI 활용 교육을 연계해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성장하는 학생’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2030교실을 110개 추가 조성하고 AI 기반 수업 도구와 실험·탐구형 교실 환경을 고도화해 2030교실에서는 학생 주도 설계 수업, 개인화 학습, 지역문제 해결 탐구 등 미래교육의 핵심 역량을 키운다.

도교육청은 AI 문해력과 인문학적 사고력을 동시에 강화하며 수업 중심 학교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또 시민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확산도 추진한다.

K-민주주의의 원류인 전남의(義) 교육, 생태 전환 교육, 지역 인재 육성을 연계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협력·참여·책임을 배우며 지속 가능한 시민성을 기를 수 있는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최근 화순 하니움문화 스포츠센터에서 내년도 교육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이와 맞물려 교육발전특구도 학생들의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세계를 품고 지역을 살리는 글로컬 교육 고도화’에도 힘쓴다. 글로컬 전남 국제 교류, 지역 기반 융합형 K-교육허브 구축, 이주 배경학생 통합지원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내년 개교 예정인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도 교육과정 운영을 준비하며 전남형 미래학교 모델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2026년은 전남교육이 지난 4년간 쌓아온 변화의 기반 위에서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컬 전남교육 도약을 이뤄내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며 “전남에서 시작된 교육의 대전환을 대한민국 K-교육의 미래로 확장하고, 모든 학생이 지역을 기반으로 세계와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옥 기자

GIST 국내 첫 ‘토양수분 연구거점’ 조성

NASA 공동 추진 함평에 구축
郡과 지역 상생발전 업무협약
기후대응·인재 양성·농업 혁신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이 함평군에 국내 첫 토양수분 연구거점을 조성한다. 8일 GIST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120개의 토양수분, 토양온도 및 나무 전기전도도 측정 장치를 설치해 NASA 위성 관측 자료를 검증하는 ‘토양수분 검증 연구 사이트’를 함평군에 구축한다.

함평군은 자연환경 보전과 농업 기반의 안정성이 높아 현재 NASA가 운영하는 전

세계 30여곳의 검증 사이트와 경쟁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 사이트가 본격 가동되면 함평군은 국제 기후·농업 연구 및 위성자료 검증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GIST는 연구사이트 구축에 따라 최근 함평군청에서 임기철 총장과 이상익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생발전 및 미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GIST의 글로벌 연구역량과 함평군의 풍부한 자연·농업 지원을 연결해 지역 기반의 기후 대응·농업 혁신 생태계 조

성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함평군 기후변화 대응·교육 역량 강화 ▲지역 인재 양성·연구시설 공동 활용 ▲4차 산업과 농림축수산업 연계사업 발굴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GT MBA) 교육과정 개설 및 장학생 선발 등이다.

임기철 총장은 “함평군의 미래 지역발전 사업에 GIST가 보유한 과학·기술 역량이 더해진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NASA와 GIST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토양수분 검증 연구 사이트 구축을 계기로 GIST와 함평군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익 군수는 “기후변화와 지역 소멸 등 시대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며 대한민국의 혁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굳건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선옥 기자

‘학교에 세계가’…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국제화특구 성과공유회

오는 15일 시민협치진흥원서
글로벌 교육활동 사례 공유 등

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은 8일 “오는 15일 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 광주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성과공유회 및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 학교에 세계가 들어온다’를 주제로, 학교 현장에서 추진된 글로벌 교육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생·교사·학부모·시민에게 글로벌 감수성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교육국제화특구 주요 운영 성과 소개, 특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월곡초등학교 등 3개 학교 우수사례 발표,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의 ‘다문화의 이해와 존중’ 주제 강연 등 순으로 진행된다.

린데만은 특강에서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태도가 미래 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14일까지 포스터 정보무늬(QR 코드) 또는 온라인 링크(<https://forms.gle/5zRLSBEEHH5EdFqvtf9>) 통해 하면 된다.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광산교육지원센터(062-616-9522)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성철 교육장은 “올해 성과공유회는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세계를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전남대 RISE사업단

공공형 학습 플랫폼 ‘빛나래’ 공개

광주시민 온라인 강좌 무료 수강

전남대학교 RISE사업단은 8일 “G-Rise 공유대학 플랫폼 ‘빛나래’(<https://grise.kr>)”를 공식 공개했다”고 밝혔다.

‘빛나래’는 광주시민 누구나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공공형 학습 플랫폼으로 지역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구축됐다.

전남대 RISE사업단은 ‘빛나래’를 통해 광주에 거주하는 지역민·재직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개형 온라인 강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강좌는 ▲생성형 AI 활용 ▲정신건강 ▲교양 및 전문지식 등 다양한 분야이며, 일상과 직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윤성 단장은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편리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빛나래’의 핵심 가치”라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광주 시민의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RISE사업단은 앞으로도 지역과 대학을 잇는 열린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선옥 기자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입니다.